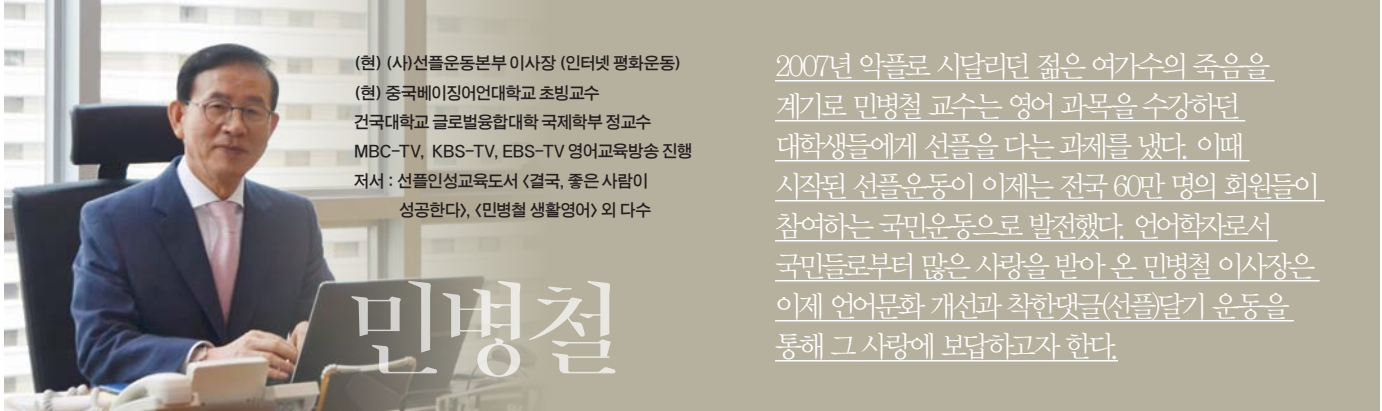


<악플로 상처받지 않을 권리>도 중요합니다



(현) (사)선플운동본부 이사장 (인터넷 평화운동)
 (현) 중국베이징어언대학교 초빙교수
 건국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국제학부 정교수
 MBC-TV, KBS-TV, EBS-TV 영어교육방송 진행
 저서 : 선플인성교육도서 <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민병철 생활영어> 외 다수

2007년 악플로 시달리던 젊은 여가수의 죽음을 계기로 민병철 교수는 영어 과목을 수강하던 대학생들에게 선플을 다는 과제를 냈다. 이때 시작된 선플운동이 이제는 전국 60만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했다. 언어학자로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온 민병철 이사장은 이제 언어문화 개선과 착한댓글(선플)달기 운동을 통해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다.

Q. 선플운동본부가 추진해 온 선플달기 운동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A. 선플은 한자의 착할 선(善) 자와 영어의 Reply의 합성어입니다. '선플'은 착한 댓글(good comments), 긍정적인 댓글(positive comments)로, '악플(malicious comments)'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플 달기는 무조건 칭찬의 댓글만을 달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의 글은 수용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 사실, 욕설 등을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에게 응원과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아 사회에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선플운동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악플의 폐해와 선플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 교육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Q. 국민들에게는 실용영어 교육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신데, 선플달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A. 2007년 초, 한 젊은 여가수가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를 접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해 봄 학기에 제 영어수업을 듣는 570명의 대학생들에게 악플로 인해 고통받는 10명의 유명인들의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방문해서 악플을 자세히 읽어 본 다음, 이 사람에게 근거 없는 악플을 달지 말아야 할 이유와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내용의 선플을 달아주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과제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악플이 달린 연예인들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에는 순식간에 5,700개의 아름다운 선플

이 달리게 되었고, 이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악플의 폐해와 선플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선플운동이 시작된 계기입니다.

Q. 선플달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지요?

A. 대전에 있는 우송중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중에 버스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 한 학생이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힘내라 재윤아, 학교 가자, 너는 꼭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선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이 학교 모든 학생들이 선플을 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학교에서 악플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재윤이를 위해 선플달기를 하는 과정에서 악플의 폐해와 선플의 필요성을 학생들 스스로가 깨달았던 것이죠. 현재 중국 웨이보와 함께 한·중 네티즌들이 임재운 학생이 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가을에는 임재운 학생의 빠른 쾌유를 지원하는 '작은 선플 음악회'를 재운 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Q. 2016년 중국 <웨이보>에서 선정한 '공익유명인사 랭킹' 17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중국 등 외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도 소개해주십시오.

A. 2008년과 2013년 중국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7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 쓰촨성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추모와 위로의 선플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게시된 선플 1만여 개를 모아 '선플 추모집'을 만들어 중국 CCTV에 전달하고, 선플 음악회를 통해 모금한

기금을 야만시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한·중 청년선플사이버공공외교단을 발족하여, 양국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나 문화를 소개하고 상호 응원하는 글로벌 선플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2014년 4월 한국의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추모 사이트를 개설하여 5만여 명의 중국 네티즌들이 추모의 뜻을 밝혀 왔으며,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 실시간 '햇빛(선플) 토론'을 개최하여 많은 중국 네티즌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세계인터넷대회에 참석했고 당시 중국 관영 CCTV를 통해 선플운동을 소개하였으며, 올해는 북경과 청도지역 대학생들 및 교직원들에게 선플 특강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Q. 19대 국회의원들과 '선플정치운동'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 이외에도 연예인 등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의 참여가 있는지요?

A. 지난 19대 국회의원의 98%인 294명이 선플 운동에 동참한다는 서명을 하였고, 300여 명의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 학생들이 응원과 배려의 선플 언어를 사용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정한 후 '국회의원 선플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선플상을 수상한 국회의원들은 청소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더욱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가수, 아나운서, 개그맨 등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방송인 선플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시상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인들이 선플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선플운동을 통해 일어난 변화를 체감하시는지요?

A. 2007년 초 제가 가르치는 한반의 대학생들로부터 작게 시작된 선플운동이 이제는 전국 60만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악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지, 선플이 무엇인지, 선플을 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하나하나 설명하고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선플 선언식

과 선플 거리 캠페인을 전개해야 했습니다. 현재 선플운동에 참여하는 학교와 단체가 7천여 개에 이르고 선플운동본부에 등록된 지도교사가 2천 6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플운동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Q. 악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먼저, 인성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은 어린학생들부터 선플운동과 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활동을 실천하여 몸에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데요, 특히 인터넷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는 인터넷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현재, 악플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악플이 삭제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 악플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악플 확산을 막는 역할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선 블라인드처리, 후 검토제도'를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플을 달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악플로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글에 악플이 달렸을 때 그 악플을 쓴 사람만이 그 글을 지울 수 있는데, 악플을 받은 사람이 직접 지울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조정과 증재를 통해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요?

A. 우선 국민들에게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가 나면 이후에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져도 당사자들은 이미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후입니다. 언론에서는 보다 신중히 보도해야 하겠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억울한 국민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